

홍해 인근 선박보안 위협 지속, 우리 선박 경계 강화해야

- 해수부, 국정원, 외교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간 대응체계 유지

정부는 홍해 인근 해역에서 선박에 대한 예멘 후티 반군의 보안 위협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해당 해역을 운항하는 우리 선박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11. 19. 바하마 국적 자동차운반선 Galaxy Leader호 피랍, 11. 25. 몰타 국적 컨테이너선 CMA CGM Symi호 드론 피격, 11. 26. 라이베리아 국적 유조선 Central Park호 피랍·구조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선박에 대한 공격을 예고한 이후 현재까지 우리 선박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없었으나, 지난주 국정원 첩보에 따라 홍해를 통과하기로 했던 우리나라 선박 한 척이 항해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또한, 최근 홍해 인근에서 정체불명의 소형선이 우리 선박에 접근한 사례도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단체대화방 및 공문 등을 통해 선사 및 관련 협회 등에 실시간으로 현지 동향을 제공하며 안전운항을 당부하고, 관계기관·선주단체 대상 간담회(11. 21.), 정부 합동 보안 세미나(11. 29.) 등을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외에 홍해 운항 선박에 대한 집중 관찰(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청해부대 및 연합해군과 함께 유사시 지원체계도 가동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예멘 후티 반군의 활동 반경에 포함되는 아덴만, 홍해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에게 「해적피해예방요령」에 따른 통항 지침을 준수하고, 출입구 1/2 폐쇄, 해상 접근 감시 및 경고조치 등 「국제선박항만보안법」에서 정한 선박보안 2등급에 준하는 보안 활동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당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와 청해부대에 즉시 알려주시길 바란다.”라며, “정부는 소중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지키기 위해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실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책임자	과 장	이민중 (044-200-5850)
		담당자	사무관	문승록 (044-200-5851)
(공동)	외교부 해외안전상황실	책임자	과 장	강영미 (02-2100-8565)
		담당자	사무관	민경천 (02-2100-8567)
(공동)	국방부 국제평화협력과	책임자	과 장	조소영 (02-748-6350)
		담당자	중 령	이범준 (02-748-6352)

